

전면등교, 단체활동, 여행 등 일상 회복 중

수두·유행성이하선염· 홍역·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하기



수두·유행성이하선염·홍역· 인플루엔자 알아보기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환자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률이 높고
매년 4~6월과 10월~이듬해 1월 사이 발생이 증가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였던
홍역,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이 해외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수두·유행성이하선염·홍역·인플루엔자 주요증상

수두

미열, 발진, 수포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이하선염과
이하선 주위 통증
(양쪽 또는 한쪽 볼이
붓고, 통증 동반)



홍역

발열(38℃ 이상),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인플루엔자

고열, 두통,
콧물, 기침,
인후통



감기로 오해하기 쉬우나, 4일째부터 목뒤, 귀아래,
몸통, 팔다리에 홍반성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차이점

소아에서는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동반

수두·유행성이하선염·홍역·인플루엔자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호흡기감염병은 발열, 발진, 이하선염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시작되면 이미 전염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염기에는 면역이 없는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 **등교·등원·출근은 전염기가 지난 후 가능합니다.**
- ✓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감염병 관련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 **외출(진료 등) 시 타인에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 **대중교통 대신 걷거나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두·유행성이하선염·홍역·인플루엔자 언제까지 주의가 필요할까요?

수두 전염기

모든 발진 부위에
가피(딱지)가
생길 때까지
(최소 5일 이후)



유행성이하선염 전염기

이하선염 발생 후
5일까지



홍역 전염기

발진 시작된 후
4일까지



인플루엔자 전염기

증상 발생 후
5-7일까지



전염기가 지나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격리하거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수두·유행성이하선염·홍역·인플루엔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위생 철저**(자주 손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
- ✓ **수두 및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접종 미완료자는 예방접종 완료**
(예방접종은 감염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권장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 ✓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수두는 평생 면역!**
- ✓ **감염되더라도 증상은 가볍게, 감염 전파는 덜 일으킵니다.**

감염병	예방법	예방접종 권장 횟수·시기
수두	수두 예방접종	총 1회 (생후 12~15개월)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MMR 예방접종	총 2회 (1차: 생후 12~15개월 / 2차: 만 4~6세)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매년 1회 (10~12월)

· 만 12세 이하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 국가예방접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7

**예방수칙을 지키면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